

# 좋은 책을 만나면 용기를 얻는다

김영진 | 영화평론가 · 《필름2.0》 편집위원

나는 가끔 후배들에게 큰소리치곤 한다. 내가 일류 글쟁이라곤 할 수 없지만 일류독자인 건 자신한다고, 그러니 당신들의 글을 읽고 논평하는 내 말을 신뢰해도 좋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요즘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 독자가 못된다는 걸 스스로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신문과 잡지를 읽는 데도 허덕이다 보면 마음먹고 읽기 위해 구입한 책들은 책장에서 먼지만 먹으며 잊혀지게 마련이다. 읽지 않으면 쓰기도 힘들어진다.

물론 핑계도 있다. 웬만한 번역서는 읽기가 점점 힘들다. 특히 전문적인 영화이론서의 경우에는. '중층 결정된' 따위의 상투적인 수사가 이제 좀 지겨워진다. 갈수록 거친 번역투의 문장에는 앨러지 반응을 느끼는 것이다. 좋은 문장을 읽었을 때 거기에 내 글의 호흡이 전염되는 것은 기본 좋은 체험이지만 나쁜 문장을 읽으면 내 마음에 뿌루지가 생긴 것 같은 찝찝함이 남는다. 개인적으로 인문서의 번역 수준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책을 읽지 않는다고? 아니, 이전 과장된 변명이다. 책을 읽기는 읽는다. 최근엔 박노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한겨레신문사)이란 책을 읽었다. 이걸 읽으면서 학자이자 저술

가로서 해야 할 소임이 무엇인지에 관한 모범을 봤다. 이 러시아 출신 귀화 한국인은 정확한 한국말로 우리의 아픈 곳을 마구 찌른다. 한국이 왜 아직도 전근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천민자본주의의 극단을 걷고 있는지, 자연스런 관념으로 주입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등의 개념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렸는지 그는 놀랄 만큼 정확한 통찰로 짚어낸다. 한국 사회가 지성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사실은 상식이 없는 사회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의 글은 아프다. 톡톡 건드리는 것 같은데 책을 덮고 나면 마음이 베어 쓰라리다는 걸 알게 된다. 요즘 이런 저술가가 그리 보기 흔한 게 아니다. 대학을 나온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최근에 읽은 책은 또 있다. 미국 영화잡지 기자 출신의 피터 비스킨드가 쓴 《헐리웃 문화혁명》(박성학, 시각과언어)이다. 논픽션이 어떤 소설보다 흥미진진하다는 걸 이 책은 일깨운다. 로큰롤과 마약과 섹스를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였던 젊은 영화 감독 세대가 어떻게 낡은 1960년대의 할리우드를 접수하고 새로운 표현규범을 세웠으며 스스로 황제가 돼 영화 산업의 복판에서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묘사한 이 책에 거론된 <대부>의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스타 워즈>의 조지 루카스, <쥬스>의 스티븐 스필버그, <택시 드라이버>의 마틴 스콜세지 감독 등은 그들의 예술적 재능과 인간적 허점을 저자의 입심에 의해 날날이 폭로당하고 있다. 앵글로색슨 지역의 일류 저널리스트가 구사하는 문체가 흔히 그렇듯 적당히 유머를 섞은 달뜬 문체는 특정 시기의 영화 역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방대한 정보에 종종 조소와 빈정거림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 담긴 잔인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그곳 사회의 문화적 관용도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이런 걸 읽으면서 생각한다. 읽고 쓰는 작업 속도를 더 붙이자고. 좋은 책은 늘 그렇듯이 용기를 준다.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i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